

소시민문학론과 ‘근대화’*

황 정 아**

[초 록]

이 논문은 1960년대 말 한국 문학담론에서 벌어진 시민-소시민 논쟁의 한 축인 소시민문학론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소시민문학론이 여러모로 독특한 소시민 개념을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하려고 했던 바는 일종의 근대화 기획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시민문학론은 ‘시민’ 대신 ‘소시민’을 근대적 주체로 내세우면서 풍속 혹은 인습으로 집약되는 전(前)근대성과의 단절로서 근대화를 강조한 반면, 반(反)근대 혹은 근대성 비판이라는 측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소시민문학론이 소시민-개인-자기의식-개성을 연결하여 만들어낸 공간은 관습적 모더니즘의 ‘내면으로의 선회’(inward turn)에 조응하면서도 특히 비대하게 부풀려져 있어서 현실은 그 대립항으로 설정되지도 못한 채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01).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 교수

주제어: 소시민문학, 시민, 근대화, 개인, 내면으로의 선회, 모더니즘, 트리비얼리즘, 리얼리즘, 문학의 자율성
Petit-bourgeois Literature, Citizen, Modernization, Inward Turn, Modernism, Trivialism, Realism, Autonomy of Literature

그 속에 흡수된다. 소시민문학론의 또 다른 요소인 트리비얼리즘론 역시 정치나 역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소한 것들을 강조했으며 이는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옹호로 이어진다. 내면과 문학의 압도적 자율성을 담보로 모더니즘의 지표를 달성하는 것이 소시민문학론이 작동시킨 문학에서의 압축적 근대화였던 셈이다. 소시민문학론이 지향한 근대화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문학담론을 오래도록 지배해온 모더니즘의 영향을 새삼 확인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모더니즘적 근대화 기획이 하나의 이념적 태도일 뿐임을 검증하는 작업이다. 특정한 이념적 산물로서의 소시민문학론이 야기한 주된 문제점은 근대화를 꾀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근대적 현실과의 발본적인 대결을 통해 근대 자체를 역사화하고 비판할 지평을 폐쇄한 데 있다.

1. ‘근대화’라는 키워드

근대적 주체를 대표하는 개념을 꼽으라면 ‘개인’, ‘민족’, ‘국민’ 못지 않게 강력한 지분을 주장할 또 하나의 후보가 ‘시민’일 것이다. 시민권, 시민의식, 시민운동 등 수많은 관련개념들이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시민 개념이 근대성을 낳고 또 떠받쳐온 대표적 ‘운동개념’이라는 데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시민’은 또한 국가라는 근대의 대표적 정치공동체와 긴밀히 결부되어, 외국인이나 난민과 비교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로 생각되는가 하면 시민혁명이나 시민사회라는 용례처럼 국가를 상대하는 주체 역할을 떠맡기도 했다. 그에 비해 ‘소시민’은 이제 좀처럼 유통되지 않을 뿐더러 ‘시민’에 비해 역사적 지명도에서나 평판에서나 상당히 처지는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문학담론 영역에서 주체 개념이 전개되고 변모하는 양상을 살피는 데는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이며, 특히 근대화와 관련하여 한국문학 담론의 독특한 지형을 조성한 주된 요소라 할 만하다.

‘소시민’의 개념적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것이 60년대 후반 문학담론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시민-소시민 논쟁’이다. 이 논쟁의 면면은 대체로 전후세대와 60년대 세대(68문학그룹, 이후 『문학과 지성』 그룹으로 이어짐) 사이의 세대론적 논쟁(1차)으로 출발하여 이후 각각 소시민문학과 시민문학을 전면에 내세운 김주연과 백낙청의 대립(2차)으로 이어진다고 요약된다.¹⁾ 세대갈등의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소시민’과 ‘시민’ 개념 둘 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후 문학담론에서 뚜렷한 지속성을 갖지 못했기에 이 논쟁을 다룬 연구들은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실은 의미심장한 논쟁’이었음을 설명하며 시작할 때가 많다. 그런 설명 가운데 하나로, “이 논쟁은 … 근대적 주체 생산을 둘러싸

1) 더욱 구체적인 전개에 관해서는 다음 인용으로 대신한다. 이 논쟁은 “전후세대의 서기원이 ‘60년대 세대’에 대해 ‘역사의식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편 테서부터 시작 되는데, 이에 ‘68문학그룹’의 수장격인 김현이 『1968년의 작가상황: 신문학60년의 작가상황』(『사상계』, 1968.12.)라는 글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게 되고, 이어 같은 ‘68문학그룹’인 김주연이 『새 세대의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의 60년대』(『아세아』 창간호, 1969.2.)라는 글에서 ‘60년대 세대’를 ‘소시민 의식’이라는 말로 옹호하였고, 또한 같은 그룹이었던 김치수 역시 『한국소설의 과제』(『68문학』, 1969.1.)에서 ‘60년대 세대’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1960년대 말의 ‘세대논쟁’은 서기원이 다시 『전후문학의 옹호』(『아세아』, 1969.5.)라는 글로 지금까지의 ‘68문학그룹’이 자신에게 가했던 반론에 대해 재반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서기원의 글에 대해 ‘68문학그룹’의 김현이 『분화 안 된 사고의 흔적』(『서울신문』, 1969.5.6(화))이라는 글로 맞받게 되고, 이어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 서기원이 『대변인들이 준 약간의 실망 - 김현씨의 『분화 안된 사고의 흔적』에 답한다』(『서울신문』, 1969.5.17(토))라는 글로 다시 응대하며, 이에 또 김현이 『오히려 그의 문학작품을』(『서울신문』, 1969.5.29(목))이라는 글로 재비판을 가하고 이어 마지막으로 서기원이 『맛이나 알고 술 권해라』(『서울신문』, 1969.6.7(토))라는 글로 마지막 반론을 펴면서 ‘세대논쟁’은 일단락을 맺게 된다. 그러나 이 세대논쟁이 이렇게 일단락을 맺어갈 무렵 ‘68문학그룹’과 동세대인 백낙청이 『시민문학론』이라는 글을 들고 나오으로써 이전의 ‘세대논쟁’의 양상은 백낙청과의 동세대간의 논전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채희영(2013), 『1960년대 소시민 논쟁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pp. 18-9.

고 여전히 해명되어야 할 이론적 문제를 남긴 중요한 논쟁²⁾이었다는 김미란의 평가가 있다. 68문학그룹 내부의 공통점으로 그들이 “문학적 근대화를 꾀했다”는 점을 든 전상기의 지적³⁾도 비슷한 논지라 하겠는데, ‘문학적 근대화를 꾀하기’로 친다면 논쟁의 다른 당사자인 백낙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가능하다. 백낙청은 1966년 『창작과비평』 창간사에서 “문학이 예술로서 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거나 “문학이 근대화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이상을 제시하며 또 실천하는 역사의 주동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⁴⁾ 따라서 이 논쟁은 주체 문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근대화’ 기획을 연루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근대성을 탐구하는 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다.

1960년대의 지배적 키워드가 ‘근대화’였음을 감안할 때, 시민-소시민 논쟁이 ‘근대화 기획’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최근의 한국문학 연구경향에서는 곧바로 다음 두 가지 결론으로 향하기가 쉽다. 첫째, 논쟁을 벌이는 양측이 근대화라는 더 큰 아젠다를 공유하는 한에서 둘 사이에 실은 차이보다 동질성이 더 크다(혹은 중요하다). 김미란에 따르면 실제로 “두 비평가[소시민문학을 말한 김주연과 시민문학을 말한 백낙청]는 동일한 근대적 인식틀에 의존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⁵⁾ 둘째,

-
- 2) 김미란(2006), 「‘시민-소시민 논쟁’의 정치학: 주체 정립 방식을 중심으로 본 시민·소시민의 함의」, 『현대문학의 연구』 29, p. 256.
 - 3) 전상기(2004), 「문화적 주체의 구성과 소시민 의식: ‘소시민’ 논쟁의 비평사적 의미」, 『상허학보』 13, p. 482. 전상기는 김치수를 인용하며 이와 같은 ‘문학의 근대화’가 “일상적인 개인이 거대한 역사와 현실을 지적인 감수성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보존하고 존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일환으로 현실의 작은 부분에 천착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투철한 자기 인식’”(482면)을 가리킨다고 기술하는데, 이는 이 68문학그룹의 담론을 충실히 요약한 데 그칠 뿐 그런 것이 왜 ‘근대화’인지에 관한 분석이라 보기는 어렵다.
 - 4) 백낙청(1966; 2011),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민족문화와 세계문학 1 /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창비), pp. 416-7.
 - 5) 김미란(2006), p. 257.

그런 점에서 이 논쟁은 당시의 문학담론마저 크게 보아 박정희정권이 주도한 ‘(조국)근대화’ 담론에 포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⁶⁾ 이런 논법의 한 사례로 ‘박정희 모더니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제시한 『1970 박정희 모더니즘』은 일단 당대의 정치와 운동을 두고 “자유주의 대 반자유주의의 성격이 짙”었다고 규정한다. 그런 다음, 자유주의의 이름 아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지식인부터 (당시 전경련의 초청을 받았던,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까지 포괄하고, 뒤이어 자본이라는 더 상위의 입장에서는 실상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가 크게 구분될 이유도 없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 애초의 자유주의 대 반자유주의 구분은 희석되면서 “자유주의는 [반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친] 유신의 사생아”라는 주장이 가능해지고 마침내 ‘박정희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로 그 모두를 아우르는 ‘식별불가능한 영역’이 만들어진다.⁷⁾

이 글은 그런 결론과는 반대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박정희식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있다 해도 문학담론이 겨냥한 근대화는 그것과 식별 가능하고 또 식별되어 마땅하며, 문학담론 내부에서도 소시민문학과 소시민문학론이 어떤 식의 근대화를 아젠다로 품었다는 공통점보다 그 아젠다를 성취하는 방식의 차이가 더 중요하리라는 것이다. ‘신앙’으로 격상된 박정희식 조국근대화기⁸⁾ 경제성장을 거의 유일한 지시대상으로 삼

6) 그러나 이런 입장이 반드시 ‘공평한’ 양비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학적’ 근대화를 말하는 것은 문학으로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주장보다 최소한 좀 더 우회적인 데다 문학성이라는 자율적 공간을 설정한 점에서 그만큼의 상대적 ‘면책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7) 권보드래 · 김성환 · 김원 · 천정환 · 황병주(2015),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 상상), pp. 33-4.

8) 박정희는 1967년의 연두교서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1967년 1월 17일)라고 역설한 바 있다.

았다는 사실로 볼 때 문학에서의 근대화가 ‘조국근대화’와 문자 그대로 동일시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양자 간의 어떤 ‘암묵적’ 공모 여부가 쟁점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암묵적 공모가 있다 해도 그것이 근대화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 반대 혹은 표방)했는가를 따지는 접근으로 드러날 리 만무하며, 그런 공모를 ‘자본’의 층위에서 판별하려는 시도 역시 지나치게 둔탁하거나 과민한 진단을 낳기 십상이다. 자본의 시각에서는 축적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아 자본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무언가가 아닌 한 궁극적 변별은 생기지 않을 것인 반면, 그때그때 자본축적을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혹은 용이하게 하는 것을 전복이나 공모로 칭하는 일은 선부른 변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이 하려는 바는 시민-소시민 논쟁의 한 축인 ‘소시민’에 초점을 두고 주요 당사자인 김주연의 여러모로 독특한 소시민문학론을 상세히 논하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켄틴 스키너의 권고대로 그가 소시민을 ‘말함으로써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를 근대화와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소시민문학론이 구상한 근대화의 성격을 당시의 논쟁이나 박정희식 근대화의 맥락에 놓고 파악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근대문학담론 일반의 역사에서 그리고 그런 문학담론들에 내포된 근대성담론의 역사에서 그것이 어떤 좌표에 놓이는지 살피는 일 역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작업을 통해 소시민문학론이 속한 담론상의 계보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2. 소시민과 ‘내면으로의 선회’

다소 일반화하자면 시민은 소시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시민을 이야기하는 순간엔 언제나 시민이 전제되게 마련이다. 부르주아 없이는 뻘 부르주아 개념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

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간적 순서로 보면 백낙청의 『시민문학과』이 김주연의 소시민문학론을 비판하는 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소시민문학론 역시 어떤 종류의 시민문학론을 이미 반박하고 있다. 김주연 스스로 “사회 구조와의 필수적인 연계관계 아래에서 고찰된 사회학적 결론과는 무관하다”⁹⁾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다시피, “5.16 군부쿠데타 이후 두드러진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만족을 구하는 속물적인 심리를 비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용”된 소시민 개념을, “당시의 일반적인 규정 방법과 전혀 다”¹⁰⁾른 의미를 고안하면서까지 굳이 ‘낮설게’ 구사한 것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다시 말해 소시민은 시민을 쓰지 않기 위해, 혹은 반박하기 위해 선택된 개념으로 보인다. 60년대가 4.19혁명으로 시작되었고 그 혁명은 무엇보다 ‘시민’혁명으로 분류되는데 점을 감안하면 4.19세대라 통칭되는 문학인들 사이에 ‘소시민’이 거론된 것이 어느 정도로 ‘의식적인’ 사건일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주연의 글은 서두에서 “60년대가 갖는 문학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희망을 피력하고 그 중요성은 60년대 문학이 “너무도 중요한 새로운 전환”을 보여준 점, “한마디로 문학에 대한 인식의 비로소 싹틈”에 있다고 진술한다(253면). 글 부제에 나오는 ‘인식의 출발’이 다른 아닌 문학에 대한 인식의 출발임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단락의 마지막은 “이러한 귀중한 발견은 … 서구 중세 기사문학의 해체와 60년대 전세대 우리현실과의 조감과 함께 얻어진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세문학의 해체와 근대문학의 출발에 버금가는 분기점이 ‘전세대’에 대한 60년대 문학(적 인식)의 새로움에 내재한다는 함축이 발생하며 그것이 곧 이 글이 ‘문학적 근대화’와 관련되는 지점일 것이다. 60년대의 새로운 문학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줄곧 ‘샤머니즘’, 무위주의, 인습, 풍속, 주술 등 일반

9) 김주연(1969), 『새시대 문학의 성립: 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아세이』 2월, p. 265.
이하 『새시대 문학』으로 표기하고 이 글의 인용은 괄호에 면수만 표기한다.

10) 김미란(2006), p. 254.

적으로 전근대와 결속되는 이름들이 소환되는 점 역시 이 글에 담긴 근대화 기획을 확인해준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하필 소시민이 이 근대화의 주체로 호명되는가. 그것은 김주연이 말하는 60년대 문학의 새로움, 곧 그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성격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보아야 드러날 것이다. 그는 김승옥, 박태순, 서정인, 이청준, 박상룡의 작품들을 새로운 분기의 사례로 들면서 그 공통점으로 ‘개인의식’(개인화나 개성화로 표현되기도 한다)을 꼽는다. 가령 김승옥의 『생명연습』은 “우리 소설에서 인물 각자가 자기의 의식을 갖고 그 때문에 남과의 사이에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그밖에도 “각자각자가 자기만의 의식으로 개별화하고 있다는 사실”(254면)이 갖는 중요성은 글 전체를 통해 거듭 강조된다. “새 시대 문학의식의 기본 심리가 되고 있는 소시민의식”은 여기서 “현대문학이 지향하는 개성적 인간의 현현이라는 이념”(265면)과 동일한 것을 지칭한다.

자기의식을 갖는 개인이 과연 60년대 소설에 와서나 출현하는지(심지어 근대문학에 와서야 출현하는지)는 별도의 질문으로 남겨놓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기만의 의식’이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의식 일반부터 스스로에게 향해진 자기반영적 의식에 이르는 스펙트럼에서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는지도 모호하다. 넓게 보면 김주연이 소시민-개인-자기의식-개성을 연결하여 만들어낸 공간은 관습적인 모더니즘의 이른바 ‘내면으로의 선회’(inward turn)에 조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더니즘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체, 곧 아웃사이더로서 사회와 불화하는 개인(혹은 작가)은 좀처럼 소시민으로 지칭되지 않으며, 사실상 소시민이 개성적 인간 같은 긍정적 함의를 갖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따라서 김주연의 글에서 소시민을 둘러싼 일정한 균열이 감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하면 박태순의 소설을 논하는 한 대목에서 김주연은 “간단히 말해 속물의 인정은 현실에 대한 파악의 정직이며 그것을 거침으로써 하나

의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인간을 보고 그들끼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새로운 현실로 본다는 건강한 소시민의식의 노출이다”(258면)라고 이야기 한다. 여기서 ‘그것을 거침으로써’라는 표현은 언뜻 속물을 알아보고 또 속물이 존재하는 현실을 알아보는 것이 그 너머의 차원, 곧 속물을 극복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계기나 단계이리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실제 이 문장에서 그와 같은 인정과 파악을 ‘거쳐’ 나아간 곳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보고’ 그들로 구성된 현실을 ‘보는’, 다시 말해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지점일 따름이다. ‘속물의 인정’은 속물 아닌 다른 무엇으로 안내할 가능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미 속물과는 다른 무엇, 곧 ‘개성을 가진 개인’의 표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속물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개성을 보장받는 이런 논리는 ‘건강한 소시민의식’이라는 형용모순적 표현만큼이나 거친 봉합의 산물이다.

이렇듯 미심쩍은 개념인 소시민이 어떤 기제를 통해 핵심주체에 합당한 위엄을 부여받는가. 이 질문 역시 근대화기획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현존만으로 충분한 질서가 되는 소시민”(261면) 같은 서술에 담긴 소시민의 품격은, “자기 밖의 의지가 만들어놓은 풍속에 끝내 거부 의 눈길 한번 보내지 못하고 동화되는” “불완전한 인간들”(261면)과의 대비를 통해 발생한다. 이 대목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안의 의지’ 대(對) ‘자기 밖의 의지’, 혹은 주관 대(對) 객관현실의 구분으로 해석하면 새로운 분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기에 역부족으로 비칠 것이다. 여기서 구분의 핵심은 그보다는 풍속 혹은 인습으로 집약되는 전근대적 속성과의 단절 여부이고, 그런 시대구분의 위력이 더해지면서 비로소 소시민 개념은 중심적 주체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소시민에 상응하는 영어단어 ‘petit bourgeois’의 사전적 정의에 흔히 ‘관습적이고 보수적’이라거나 ‘돈과 소유물을 중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담겨 있음을 볼 때 김주연의 용법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느껴질지 모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소시민은 ‘근대적’ 산물이며 그들이 관습적이라

면 그 관습 역시도 ‘근대적’ 관습이라는 사실 앞에서(실상 그런 사실 앞에서만) 이 아이러니는 해소된다.¹¹⁾

이런 식의 아이러니(및 그 해소)의 또 다른 예가 ‘소외’이다. 김주연의 글에서 “한국적인 소외-곧 오기와 허풍-가 아닌 현대의 보편적인 문제로서의 소외에 대해 귀중한 발돋움을 보여주고 있”(256면)다거나 “소외의 보편성에 한발자국 더 근접해 있다”(259면)는 언급들은 해당 작품이 ‘문학에 대한 인식의 비로소 싹틈’을 달성한 증거로 제시된다. ‘소외’가 대개 근대성이 낳은 해악에 대한 (주로 낭만적이거나 정서적인) 비판이라는 맥락을 갖는 데 비해, 여기서는 새로움의 증거이거나 문학적 근대화의 표상으로서 심지어 환영받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소외 곧 ‘현대적’ 소외는 근대의 부정성을 폭로하는 주제가 아니라 근대성을 입증하는 주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소외 같은 ‘현대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태도로 비추어볼 때, 소시민문학론이 표방한 반(反)전근대로서의 ‘문학적 근대화’ 기획에 반(反)근대 혹은 근대성 비판은 좀처럼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개인의식이나 자기의식으로 정의된 소시민을 중심에 둔 김주연의 근대화 기획은 프레드릭 제임슨이 지적한바 “주관성(subjectivity)이라는 주제가 부정한 방식으로 근대성 자체에 대한 ‘이론들’을 오염시킨”¹²⁾ 사례에 속한다. 제임슨이 여기서 ‘부정한 방식’(illicitly)이라 한 이유는 물론 그가 주관성을 기준으로 근대성 일반이나 미적 모더니즘을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임슨에 따르면 그것은 이른바 ‘내면으로의 선회’에 기댄 관습적 모더니즘 미학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근대성

11) ‘시민-소시민 논쟁’의 상대편인 백낙청이 당시 한국의 근대화의 상태로 보아 “서구적 소시민의 의식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전근대적 봉건신민적 요소에 비해 뚜렷한 진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지도 생기는 것이다.”라 논평한 것도 소시민론의 이런 특성과 관련된다. 백낙청(1969), 『시민문학론』, 『창작과비평』 14, p. 496.

12) Fredric Jameson (2002), *A Singular Modernity: Essay on the Ontology of the Present* (Verso), p. 130.

일 따름이며, 실상은 모더니즘 미학이 출현하던 19세기 후반의 사회적·역사적 현실의 변화가 만들어낸 한 양상이다. 탈구조주의의 ‘주체의 죽음’ 논의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적 근대는 탈주관화나 탈인격화의 경향을 동반하고 있으며 근대예술, 심지어 모더니즘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에서조차 주관적인 것의 재현에 대한 엄격한 금기가 줄곧 중요한 요소였다고 제임슨은 지적한다.¹³⁾ 소시민문학론이 모더니즘 미학의 특별히 ‘관습적인’ 해석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소시민이라는 특별히 ‘관습적인’ 근대적 주체를 소환한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트리비얼리즘과 ‘내면적’ 근대화

‘내면으로의 선화’라는 틀은 소시민론의 또 다른 축인 트리비얼리즘론에도 적용된다. 선화의 주체 쪽 이야기가 소시민론이라면 트리비얼리즘은 소시민에게 현실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한다. 김주연은 “새로운 문학이란 바로 사물에 대한 인식의 눈뜸이다. … 하나의 나뭇잎, 겨울방의 한기, 만남의 기쁨에 모두 제 무게를 재어 주고 똑같은 논리의 순환으로 전쟁과 삶, 질병과 죽음, 모순과 허무의 추상감각에도 정당한 제 무게를 달아주어야 한다”(267면)고 말한다. 나뭇잎 하나의 사소함까지 무게를 달아주는 일이라면 통상 사실의 중요성을 발견한 사조로 정의되는 리얼리즘(사실주의)에 귀속될 만하다. 그런데 김주연이 리얼리즘 대신 트리비얼리즘을 택하는 이유도 ‘내면적’ 근대화와 무관하지 않다. 먼저 “트리비얼리즘이라는 것이 다만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닌 <사소한 것의 사소하지 않음>에 대한 확인”(255면)¹⁴⁾이라면, 그 출발점을 왜 사물

13) Jameson (2002), pp. 131-5 참조.

14) 김주연의 『계승의 문화적 인식: <소시민의식>파악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에도 인용되어 있다시피 이 대목을 포함하여 트리비얼리즘 자체가 “사소한 것은 실상 사

일반 혹은 사실 일반이 아니라 트리비얼한 것, 곧 ‘사소한 것’으로 한정해야 했을지 물을 필요가 있다. 사소한 것‘마저’ 포함하기 위해서라기보다(그렇다면 역시 리얼리즘과 구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소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 말하자면 정치나 역사 같은 거대담론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임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배제 전략을 에둘러 보여주는 예가 가령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을 두고 “소설에서 현실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사소하지 않은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느끼는 한 개인의 의식 쪽에 자리잡고 있다”(257면)고 한 대목이다. 여기에 이르면 트리비얼리즘의 이면, 곧 ‘사소하지 않은 것을 사소하게 만드는’ 기제를 엿볼 수 있는바, 애초에 ‘사소하지 않은 것의 사소하지 않음’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논리를 좀 더 따라가면 트리비얼리즘이 말하는 ‘사물의 정당한 제 무게’란 결국 사물에 내재하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보다 주체의 개인 의식 곧 소시민 의식 쪽에서 ‘달아주는(재어주는) 방식으로 달아주는(부여하는)’ 것임이 밝혀진다. 마중기 시의 소시민성을 논하는 다음 대목은 김주연이 말하는 사물이 ‘내면’으로 수렴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마중기에게 처음으로 시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사물화된 체험은 그러므로 열렬한 나르시즘의 분위기를 꾸며간다. … 그것은 나르시즘 속에서의 모든 사물의 평균화이다. 특별히 중요한 것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이 사물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조금은 기쁘고 조금은 슬픈, 말하자면 가치의 상대적 부여인데 여기서 시인의 자기 존재에 대한 유한성의 자각이 나오고 그것은 자신에게 개인으

소한 것이 아니다”거나 “이 세계에는 특별히 고상한 것도, 특별히 비천한 것도 없다. 고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이며 비천한 것 역시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라는 노발리스의 주장에 상당히 기댄 것으로 보인다. 김주연(1969), 『계승의 문학적 인식: <소시민의식>파악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 『월간문학』 8월호, p. 272 참조.

로서의 의미를 되문게 한다. ... 마중기에서 나타난 체험의 사물화, 자기화와 그것의 나르시즘적 성격, 그리고 그 때문에 일어나는 가치의 상대관계와 사물의 유한성 문제는 모두 하나의 소시민으로서의 개인의 탄생이라는 종합을 향해 집중된다. (263-4면)

사물을 가시화하는 점에서 트리비얼리즘은 일정하게 사물의 ‘발견’이지만 모든 사물의 평균화를 거쳐 자기화로 이어지는 한에서는 사물의 ‘상실’이 아닐 수 없다. 사물은 발견되지만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개인의식의 탄생을 위한 기제로서 발견된다. “체험의 사물화—그것은 곧 체험의 자기화를 말한다”(263면) 같은 모순적 언설이 나오는 것이 이런 맥락인데, 1968년에 발표된 『60년대의 시인의식: 소시민의식과 낭만주의의 가능성』에서는 사물화와 자기화의 위계가 또렷이 표현되어 있다. “사물이 독자적인 속성을 인정받고 하나의 시적 대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 오히려 시인의 인간의식 구현에 보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종속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물의 독립이란 시인의 개성표현을 위한 하위개념”¹⁵⁾이라는 것이다.

‘근대적 예술체제’를 확립한 사실주의의 대표 작가 플로베르와 병치하면 김주연의 트리비얼리즘이 갖는 특성이 더 잘 드러난다.¹⁶⁾ 플로베르의

15) 김주연(1968), 『60년대의 시인의식: 소시민의식과 낭만주의의 가능성』, 『사상계』 186, p. 262.

16) 여기서 ‘근대적 예술체제’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플로베르식 사실주의의 특징에 관한 서술은 자끄 랑씨에르의 소설론을 참조한 것이다. 랑씨에르를 경유하는 이 대목의 논의는 줄고 『사실주의 소설의 정치성』(『다시 소설이론을 읽는다』 창비 2015)과 『자끄 랑씨에르와 ‘문학의 정치’』(『안과밖』 31, 2011)의 일부 내용과 겹친다는 점을 밝혀둔다. 소시민론을 자끄 랑씨에르, 특히 그의 ‘문학의 정치’ 논의와 연결한 글로 김영찬(2014), 『1960년대 문학의 정치성을 ‘다시’ 생각한다』, 『상허학보』 40 이 있다. 김영찬은 랑씨에르를 통해 소시민론의 ‘탈정치성’이 역설적으로 작동시키는 ‘문학의 정치’를 말하고 있는데, 좀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김영찬의 이런 해석이 랑씨에르가 비판한 구조주의적 ‘문학성’의 틀에 여전히 매어있다는 점만 지적해두고자 한다.

소설에는 그야말로 나뭇잎 하나하나를 세는 식으로 ‘사소한’ 것들의 상세한 묘사가 솔하게 등장하는데 이를 두고 당대 비평가들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자끄 랑씨에르에 따르면 그들은 플로베르를 위시한 사실주의 작가들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원자적이고 무분별한’ 묘사행위”에 경악하면서 이런 묘사 탓에 세부들 사이의 중요성의 차이가 지워진다고 개탄했다.¹⁷⁾ 그렇다면 사실주의에도 ‘사물의 평균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묘사과잉을 통해 부각되는 사물은 트리비얼리즘에서 처럼 나르시시즘이나 자기화의 자료로서 (그리고 이후 그 자기화된 개성을 통해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 ‘평균화’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세련되고 멋드러진 말을 추구한다는 것, 다시 말해 “스타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것이 플로베르에게 쏟아진 당대의 또 다른 비판이자 사실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¹⁸⁾ 하지만 랑씨에르는 이들의 스타일에 대한 집착을 개성의 추구나 자율적 예술형식의 추구, 다시 말해 ‘자기화’나 ‘주관화’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스타일은 그 자체로 사물을 보는 절대적인 방식”¹⁹⁾이라는 플로베르의 말을 인용하며 이들의 스타일은 독특한 글쓰기 같은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이며, 보는 방식 중에서도 ‘절대적인 방식’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랑씨에르는 설명한다. 여기서 ‘절대적’이란 표현은 작가의 주관성을 내세우기보다 “특정한 관점에 대한 어떤 주장도 억누르면서 그런 관점을 … 몰개성적(impersonal) 세계로 되돌”린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절대적인 스타일이란 “선택하지 않는 스타일”을 말한다.²⁰⁾

17) 이와 같은 당대문단의 비판에 관해서는 랑씨에르의 2009년 The ICI Berlin Institute for Cultural Inquiry 강연원고인 “The Politics of Fiction” 3면 참조.

http://www.ccs.unibe.ch/unibe/philhist/ccs/content/e6062/e6681/e169238/JacquesRanciereThePoliticsofFiction_ger.pdf.

18) Jacques Rancière (2011), *The Politics of Literature*, trans. Julie Rose (Polity), p. 130.

19) 플로베르가 루이즈 콜레(Louise Colet)에게 보낸 1852년 1월 16일자 편지의 한 구절이다.

사실주의와 트리비얼리즘의 이 비교는 두 가지를 일러준다. 첫째, 사소한 것의 포착, 곧 ‘사물화’가 취할 수 있는 경로는 단일하지 않으며 주관화 혹은 개성화와는 반대의 방향, 곧 몰개성화의 방향도 있다. 사물화를 주관화와 연결한 트리비얼리즘은 주관화(내면화) 쪽에 현저한 방점을 둔 입장이 사물(현실)이라는 항목에 대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랑시에르에게 플로베르가 근대적 예술체제를 완성한 작가였듯이 김주연에게 60년대 (일부) 문학이 문학적 근대화를 달성한 사례였다면, 플로베르식 사실주의의 ‘탈개성화’는 ‘내면으로의 선회’를 곧 문학적 근대화로 보는 것(다시 말해 내면의 발견이 곧 근대문학이라 보는 것)이 특정한 이념의 산물일 뿐임을 재차 입증해준다.

4. 근대 주체의 전범(典範)으로서의 소시민

앞서 말한 대로 소시민개념은 명시적으로는 사머니즘과 인습 등 전근대성과의 대립을 통해 정립되지만, 당대 문학담론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 하나는 4.19 이래 활발해진 시민개념에 대한 비판 혹은 그와의 차별화이다.²¹⁾ 그런 면에서 소시민론을 ‘탈정치화’로 파악한 논의가 적지 않은데, 일례로 이현석은 김주연을 비롯한 『문학과지성』그룹의 소시민론이 “겉으로는 유표화되지 않지만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참여 문학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에 대한 문학적 해석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만들며 그에 따라 문학의 가치를 정치 담론 외부에 존

20) Rancière (2011), p. 138.

21) 김미란은 김주연의 소시민은 “근대적 개인의 상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데 그럼에도 그가 “‘개인의 탄생’이 아닌 ‘소시민의 탄생’이라 일컫는” 이유는 “멀리는 시민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와 가까이는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한창 진행 중이었던 참여론을 의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바 있다. 김미란(2006), p. 266.

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한다.²²⁾ 탈정치성 문제는 현실이 곧 정치라는 당대 일각의 ‘과잉정치적’ 주장의 맥락을 감안하면서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에 앞서 소시민론 안에서 시민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보자.

「계승의 문학적 인식: <소시민의식>파악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이하 「계승」)는 소시민론을 둘러싸고 당대 작가와 비평가들이 보인 “짜증”²³⁾에 대응하여 서술된 글이다. 여기서 김주연은 본격적으로 시민과 소시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는 “소시민이라는 개념은 시민의 개념이 그렇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어휘는 아니”(51면)라고 하는데, 이 발언은 자신이 채택한 소시민 개념의 ‘낯선 용법’을 에둘러 옹호하는 동시에, 당대 한국에서는 ‘시민’이라고 해서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개념일 수 없음을 역시 에둘러 지적하는 이중효과를 겨냥한다. 시민의 ‘낯섦’에 대한 지적은 「계승」에서 수차례 반복되는바 사실상 시민으로부터의 선회를 정당화하는 주된 근거로 기능한다.²⁴⁾ 이현석은 소시민문학론과 시민문학

22) 이현석(2011), 「4.19혁명과 60년대 말 문학담론에 나타난 비-정치의 감각과 논리: 소시민 논쟁과 리얼리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 p. 231. 이밖
에 전상기 역시 “소시민 의식론자들이 역사적 주체, 혹은 정치적 주체 대신 문화적
주체로서의 의식으로 ‘소시민 의식’”을 제시했다고 본다. 전상기(2004), p. 501.

23) 김주연(1969), p. 53. ‘짜증’의 주된 내용은 이 글 다른 곳에서 김주연 자신이 정리
하고 있듯이 무엇보다 “소시민의식이란 문학에서 타개해야 마땅한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굉장히 필요하기라도 한 듯한 요소로 강조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냐하는
물음”(48면)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서기원의 「전후문학
의 옹호」(『아세이』 1969년 5월)와 「대변인들이 준 약간의 실망」(서울신문 1969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하 이 글의 인용은 괄호에 면수만 표기하겠다.

24) 가령 이런 대목도 있다. “시민의식이란 우리에게 펍 낯설은 낱말이다. 우리에게
있어, 역사적으로 지방호족의 발호와 중앙귀족이 전횡이 반복되어 온 땅에서 시민
의식의 관련해서 몇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뽑아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너무도 사건 자체들이 단편적인 것
으로 평가되어 있다. 우선 시민의식이란 그 사전적 의미가 지시하듯이 대중적인
확산과 집단적인 동원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계승」, p. 48) 시민 개념의
추상성을 말하는 이 구절의 마지막 문장도 주목할 만하다. ‘시민’ 개념은 애초에

론 둘 다에서 시민은 부재했고 그 비어있는 자리의 대리보충으로 전자는 ‘개인’을, 그리고 후자는 (이후) ‘민족과 민중’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어있는 주체로서의 시민이 문학 담론에서 구성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문학담론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시민-소시민 담론으로 구성된 60년대 말의 문학장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채 “정치적인 의미를 개념화하지 못하고 서로 제한된 방식으로 공론장에 개입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²⁵⁾ 두 담론이 공유하는 시민의 부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를 야기했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 (라캉식 논법을 빌리면) 시민의 ‘비어있는 자리’야말로 두 담론을 성립하게 만든 구성적 요소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근대화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대 주체로서의 시민의 순조로운 형성을 전제한다면 ‘근대화’가, 그것도 ‘기획’으로서, 구상될 이유는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이 어떻게 부재하며 어떻게 대체되는가 하는 면을 세세하게 보아야만 각각의 ‘근대화 기획’에 담긴 특징이 분명해질 것이다. 소시민문학론의 경우 시민과 소시민의 관계는 권리와 의무, 본능과 이성 등의 이분법에 기대어 설정된 듯 보인다.

권리를 주장하는 본능·감각위주의 욕구와 의무를 느끼는 이성 위주의 욕구가 서로 상반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바로 분열과 극복이라는 위상을 통해 현상의 근원에 접근하는 문학 인식의 내용이 된다. 시민의식과 소시민의식은 이러한 대립에 있어 바로 안팎관계를 유지한다. 시민의식은 그러므로 형성의 과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소시민의식이라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감수성의 발현을 통해서 가능하다. (52면)

개인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함축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25) 이현석(2011), pp. 249-251.

이성·책임·의무 대(對) 감성·본능·권리의 대립이 있고 후자를 “자각”함으로써 전자가 확실히 개념화되는데 그런 “자각의식이 바로 소시민 의식으로 나타”(53면)난다. 시민 형성의 과정으로서의 소시민이라는 발상은 의식 영역뿐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도 적용되는데, 4. 19 이후 “개념적으로나마” 시민의식의 싹이 생겼으나 아직은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싹을 정당한 의식조작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조작의 중요한 한 국면”이 소시민의식이다(52면).

그런데 위의 인용들을 포함하여 『계승』의 여러 대목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민 대(對) 소시민의 구분이 이성 대(對) 감성의 구분과 어떤 대응관계에 있는지는 모호하게 되어있다. 한편에서는 이성과 감성의 대립에 대한 ‘자각’ 정도가 시민과 소시민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시민은 이성, 소시민은 감성과 연결된 듯 진술하기도 하는 것이다. 가령 다음 구절에는 두 가지의 혼재가 역력하다. “소시민의식은 출발의 단서이며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의 방법론이다 … 결국은 이성에 의해 자기를 훈련시키는 시민으로 발전하거나 감성의 자유를 통해서 환상으로 발전한다.”(58면) 시민으로 가는 방향은 ‘발전’으로 기술되지만 ‘출발’로서의 소시민이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에 불과하다는 인상도 준다. 그에 비해 소시민은 ‘출발점’이지만 동시에 훨씬 풍부한 가능성을 갖는, 그런 의미에서는 더욱 완성된 존재처럼 설정되어 있다.²⁶⁾

26) 앞서 언급한 대로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에서도 시민은 부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시민론에서와는 매우 다른 방식의 부재이면 매우 다른 결론을 갖는 부재이다.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시민계급의 생성과 변천 과정이 서술되고 심지어 프랑سخ혁명이라는 “시민계급의 영웅적인 시대”도 언급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다운 시민’, 곧 “시민계급의 구성원(bourgeois)”을 지칭하기보다 “참다운 민주적 시민사회를 완성”하는 원래 의미의 “시민(citoyen, citizen)”은 부재한다고 되어 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상으로 내걸려는 ‘시민’이란, 프랑سخ혁명이 시민계급의 시민정신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면서도” 사실상 “완전한 정의”가 불가능한, “우리가 쟁취하고 창조하여야 할 미지·미완의 인간상”이기 때문이다. 백낙청(1969), pp. 463-5. 여기서 시민의 부재는 시민 아닌 다른 무엇을 내세워야 할 근거가 아니라 바로 그 부재하는 시민의 성취를 위해 싸우기를 촉구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내포를 지워 살펴 볼 때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의식을 자율적으로 하고 의식된 생각을 자율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율적>이라는 문제다.”(51면)라는 대목을 보면, 『새시대 문학』에서 소시민의 정의였던 자기화 혹은 개성화가 자율화로 표현만 살짝 바뀌었을 뿐 『계승』에서 그대로 시민의 정의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율성에 관한 한 (그 자율성이 주체의 핵심임을 김주연은 거듭 역설하는데) 소시민은 시민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의 논의가 소시민에서 시민으로의 발전이라는 흐름보다 개인과 사회, 나아가 문학과 정치 사이의 구분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명실상부한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은 아직 발아단계일 뿐이라 보면서도 논리상 그 전단계로 설정된 ‘소시민’ 개념을 이미 자율성 성취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분히 구태의연한 이분법, 곧 감성과 이성,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분리를 끌어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소시민론에서 시민의 부재는 표면적으로 ‘아직은 아닌’이라는 형식을 갖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아닌’의 구현체로서의 소시민은 마땅히 한계를 가진 주체로 설명되어야 옳다. 하지만 소시민의 가장 선명한 내용상의 대립물은 시민보다는 인습과 샤머니즘 같은 ‘전근대성’이므로 실제로는 이미 자율적이고 완성된 주체로 설정되고 따라서 시민으로의 ‘발전’이 도리어 제한적 선택지로 제시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시민 개념이야말로 트리비얼리즘을 가장 강력히 체현하고 있다. ‘소’(petit)시민이라는 ‘사소한’ 주체의 결코 사소하지 않으므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소하지 않은’ 주체, 곧 시민의 존재감은 현저히 애매해진다.

5. 문학의 근대화와 ‘문학의 자율성’

문학담론에 내포된 근대화 기획의 일차적 대상이 문학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소시민문학론의 경우 문학은 근대화의 궁극적 주체이기도 하다. 『계승』의 첫대목은, “문학을 포함한 모든 정신문화가 그것들 나름으로서 독립된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그것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상 혹은 의미를 다른 어떤 종류의 조건에 의해서도 간섭당하지 않고 지키려면 반드시 그것은 보편적이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얻어지는 독자적인 어떤 방법론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화된 현대인의 사고방식이라고 나는 믿는다.”(46면)로 되어 있다. 소시민론이 착수한 문학적 근대화의 귀착지가 전문화 내지 분화를 통해 문학이 그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었음은 이미 지적된 바다.²⁷⁾ 소시민 개념에서 ‘자율성’이 중요했던 것도 이와 관련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학의 자율성 획득이 ‘보편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언급이다. “문학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의 의식을 담당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포괄적, 전체적인 양식”(56면)이라는 대목이 일러주듯이, 그것은 곧 “매체에의 몰입을 통해 예술적 자율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근대성의 기획”²⁸⁾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매체 곧 언어를 통한 독자적 방법론을 뒷받침한 것은 언어의 특정한 사용방식(곧 ‘문학언어’가 갖는 특정한 구조)에 근거를 두고 문학적 자율성 혹은 문학성을 절제해내는 구조주의였다.

구조주의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것은 67년 경”이었고 “특히

27) 일례로 김영찬은 소시민론을 비롯한 4.19세대의 논리가 “정치를 배제하고 개인과 사회를 탈정치화하는 것을 통해 문학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려는 담론전략”이었고 “바꾸어 말하면 이는 현실 정치로부터의 분리와 고립을 통해 문학의 자율성을 근거 짓는 논리”라고 지적한다. 김영찬(2014), p. 195.

28) Rancière (2009), “The Politics of Fiction”, p. 14.

구조주의자 질베르 뒤랑의 내한 이후 구조주의의 인기는 지식인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폭발적²⁹⁾이어서 당시 구조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김현은 심지어 “오늘날에는 구조주의의 확산이 ‘미니 스커트’ 비슷하게 커져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³⁰⁾ 1968년 7, 9, 10월에 걸친 『사상계』의 구조주의 특집들이 그 한 증거가 되겠는데, 서은주는 김현과 김치수 등 문지그룹의 문학사회학 수용에서 보이는 강력한 구조주의적 경도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의 구조주의 수용은 … ‘내재적’ 접근에 관심을 두는 문학의 자율성 옹호의 기획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³¹⁾ 그런데 구조주의적 문학의 자율성이 다름 아닌 문학의 ‘근대화’ 기획이 되는 것은, 구조주의 자체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주의’가 문학이나 예술, 혹은 인간의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이념적 성질을 띠고 있는 데 반하여, 구조주의는 이념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방법론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식으로, 다시 말해 이념이 아니라 방법론이며 그것도 “과학적인 객관성”을 담보해주는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³²⁾ 김치수는 구조주의가 보여주는 “문학 작품에 있어서 ‘단위’와 ‘규칙’과 ‘문법’을 찾으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 바로 문학 연구의 객관성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객관성이 문학 연구의 과학화, 즉 문학과학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³³⁾ 구조주의가 과학적 방법론 자체라는 생각은 “구조주의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대부분의 논자들에게 공통된 견해였”으며 그때문에 구조주의는 “문학연구의 전문화나

29) 임지연(2016), 「1960년대 후반 (소)시민 개념에서 ‘사랑’의 의미」, 『어문론총』 68, p. 346. 67년이라는 기점은 롤랑 바르트와 레이몽 피카르의 비평 논쟁이 경향신문에 소개된 일을 가리킨다.

30) 김현(1968), 「구조주의의 확산」, 『사상계』 183, p. 161.

31) 서은주(2011), 「1970년대 문학사회학의 담론 지형」, 『현대문학의 연구』 45, p. 486.

32) 김치수(1988), 「구조주의와 문학연구」, 이승훈 엮음, 『한국문학과 구조주의』 (문학파비평사), pp. 257-8.

33) 김치수(1988), p. 262.

분업화의 추세 속에서 특히 호응을 얻은 방법론적 모델”일 수 있었다.³⁴⁾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논제가 지금까지도 다분히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구조주의 수용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그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이념적’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문학에서의 근대성과 자율성의 관계를 이와는 정반대로 설명한 랑씨에르를 다시 한 번 인용함으로써 자율성 논제의 이념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데 그친다. 랑씨에르가 근대문학을 촉매로 삼아 성립되었다고 보는 예술의 역사적 체제, 곧 ‘미학적 예술체제’에서 “예술은 예술이 아닌 한에서 혹은 예술이 아닌 다른 무엇인 한에서만 예술이라는 근본적인 역설”³⁵⁾로 정의된다. 예술 내적으로 소재와 장르의 위계를 허물 뿐 아니라 예술의 규칙을 사회적 활동의 질서와 구분하는 경계마저 허무는 특징으로 하는 이 체제에서 예술은 “스스로에게 이질적”³⁶⁾이며, 굳이 찾자면 예술의 자율성은 그와 같은 자기해체성을 가리킨다. 랑씨에르는 근대 문학 역시 모더니즘 패러다임에서 주장하듯 외적 지시대상과 단절된 언어의 순수한 상태나 용법에 토대를 두지 않으며, 말할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 말과 사물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뜻한다고 본다. 이때 문학이 취하는 새로운 방식도 ‘구분의 해체’로 요약될 수 있는 바, 문학은 문학언어의 특수성을 고수하기보다 문학언어와 일상언어의 구분을 부정하며 따라서 ‘문학성’이란 “누구라도 파악할 수 있는 문자의 급진적 민주주의”³⁷⁾에 다름 아니다. 문학에는 어떤 자율성도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문학 특유의 자율성인 것이다.

문학의 자율성 논제는 자율성을 어떻게 옹호했는가와 별개로 그 자체

34) 박성창(2003), 『구조주의와 한국문학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8, p. 122, 137.

35) Jacques Rancière (2009), *Aesthetics and Its Discontents*, trans. Steven Corcoran (Polity), p. 36.

36) Rancière (2011), p. 24.

37) Rancière (2011), p. 13.

가 하나의 이념이다. 다시 말하면 다소간 역사나 사회나 정치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이야기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토대를 둔 문학적 근대화 기획도 이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적인 지점은 구조주의적 문학성 논의와 소시민 개념 사이의 균열이다. ‘자율성’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소시민 주체의 자율성은 어떤 종류든 구조를 앞세우는 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데, 구조주의 자체가 ‘주체의 죽음’에 이르는 전단계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시민론으로 보건대 한국에서의 구조주의 수용은 구조의 규정력이라는 의제보다 내면성의 강조를 통한 주체의 강화 경향을 보인다. 그에 따라 구조 역시 여하한 사회적 구조가 되지 못한 채 미시적인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다. 당시의 구조주의적 문학론이 대체로 신비평의 지평에 머물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³⁸⁾ 서은주는 이 시기 문학사회학 수용이 갖는 특징을 논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었던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은 구조주의를 차용했다 하더라도 사회학적 관점이나 계급적 역사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김현·김치수가 문학과 사회의 관계성 탐구에 방점을 두는 문학사회학의 문제의식 자체에 이끌렸다기보다 … 구조주의적 요소에 더욱 매혹당한 것인 아닌가”(489면)하는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이는 구조주의 수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구조’로서의 대상이 열어주는 여하한 가능성 중에 유독 탈사회적이고 탈정치적인 경로를 택한 것 아니며, 그렇듯 많은 것들과 단절한 문학의 빈 공간을 ‘소시민적’ 내면의 비대한 자율성으로 채운 것은 아닌가.

38) 김치수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문학에서는 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이른바 ‘신비평’이라고 불리는 문학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구조주의”라고 밝힌다. 김치수(1988), p. 261.

6. 소시민문학론의 근대주의

지금까지 1960년대 말에 제출된 김주연의 소시민문학론을 읽으면서 문학담론에서의 소시민 개념이 특정한 종류의 문학적 근대화를 발동시키고자 했음을 짚어보았다. 다소 일반화하면, 서구의 미적 모더니즘이 ‘내면으로의 선회’와 ‘문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근대 비판이라는 틀 속에 놓으려 했던 데 비해, 소시민문학론이 내면과 자율성이라는 모더니즘적 논제를 특별히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내세우게 된 것은 뚜렷하게 근대화 기획이라는 맥락을 갖기 때문이다. 소시민의 내면은 현실에 대립하기보다 현실을 접어버리며 확대되었고 소시민문학의 자율성 역시 문학 바깥을 의식하기보다 바깥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부풀려진 내면과 문학의 자율성을 담보로 모더니즘의 지표를 달성하는 것이 곧 문학에서의 압축적 근대화였던 셈이다. 소시민문학론이 함축하는 근대화의 성격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박정희식 조국근대화와 어떤 암묵적 공모관계에 있는가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학담론을 오래도록 지배해온 모더니즘의 영향 및 그 특정한 수용양상을 새삼 확인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모더니즘적 근대화 기획이 근대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이념적 태도일 뿐임을 검증하는 작업이다. 하나의 이념적 산물로서의 소시민문학론이 갖는 주된 문제점은 어떤 식으로 근대화를 꾀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근대적 현실과의 더 발본적인 대결을 통해 근대 자체를 상대화하고 역사화할 지평을 닫았다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근대 비판이 없다는 이야기와는 다른 의미이다. 소시민문학론 자체는 근대 비판의 요소 역시 결핍된 것이 사실이지만 내면과 자율성이라는 키워드가 애초에 비판을 봉쇄한다고 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차 더 많은 비판을 들여오더라도 그것이 내면으로의 선회와 문학의 자율성에 기대는 한에서는 어디까지나 ‘내부 비판’ 이상일 수 없다는 뜻이다. 소시민문학론이 모더니즘이면서 동시에 근대주의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참고문헌

- 권보드래·김성환·김원·천정환·황병주(2015),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유신에서 선대이서울까지』 (천년의 상상).
- 김미란(2006), 「‘시민-소시민 논쟁’의 정치학: 주체 정립 방식을 중심으로 본 시민·소시민의 함의」, 『현대문학의 연구』 29.
- 김영찬(2014), 「1960년대 문학의 정치성을 ‘다시’ 생각한다」, 『상허학보』 40.
- 김주연(1969), 「새시대 문학의 성립: 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아세아』 2월.
- _____(1969), 「계승의 문학적 인식: <소시민의식>파악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 『월간문학』 8월.
- _____(1968), 「60년대의 시인의식: 소시민의식과 낭만주의의 가능성」, 『사상계』 186.
- 김치수(1988), 「구조주의와 문학연구」, 이승훈 엮음, 『한국문학과 구조주의』 (문학과비평사)
- 김현(1968), 「구조주의의 확산」, 『사상계』 183.
- 박성창(2003), 「구조주의와 한국문학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8.
- 백낙청(1969), 「시민문학론」, 『창작과비평』 14.
- _____(1966; 2011),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 /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창비).
- 서은주(2011), 「1970년대 문학사회학의 담론 지형」, 『현대문학의 연구』 45.
- 이현석(2011), 「4.19혁명과 60년대 말 문학담론에 나타난 비-정치의 감각과 논리: 소시민 논쟁과 리얼리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
- 임지연(2016), 「1960년대 후반 (소)시민 개념에서 ‘사랑’의 의미」, 『어문론총』 68.
- 전상기(2004), 「문화적 주체의 구성과 소시민 의식: ‘소시민’ 논쟁의 비평사적 의미」, 『상허학보』 13.
- 채희영(2013), 『1960년대 소시민 논쟁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 Jameson, Fredric (2002), *A Singular Modernity: Essay on the Ontology of the Present* (Verso).
- Rancière, Jacques (2009), *Aesthetics and Its Discontents*, trans. Steven Corcoran (Polity).

Rancière, Jacques (2009) “The Politics of Fiction,”

[http://www.ccs.unibe.ch/unibe/philhist/ccs/content/e6062/e6681/e169238/Jacques RancireThePoliticsofFiction_ger.pdf](http://www.ccs.unibe.ch/unibe/philhist/ccs/content/e6062/e6681/e169238/Jacques_RancireThePoliticsofFiction_ger.pdf).

_____ (2011), *The Politics of Literature*, trans. Julie Rose (Polity).

원고 접수일: 2017년 7월 13일

심사 완료일: 2017년 7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Abstract

Petit-Bourgeois Literature Discourse and ‘Modenization’

Hwang, Jung-A*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Petit-Bourgeois Literature Discourse presented in the “Citizen Literature vs. Petit-Bourgeois Literature Debate” of the late 1960s. What the discourse actually did with its rather peculiar concept of petit-bourgeois could be summed up as a literary modernization project. The discourse mostly focused on condemning pre-modern conventional thoughts and practices, while neglecting to criticize modernity itself. The space it created through linking different concepts of petit-bourgeois, individual, self-consciousness, and personality, corresponded to the characteristically modernist “inward turn”, but, at the same time, was oddly expanded to the point of cancelling out the significance of “outward reality.” Trivialism, an essential element of the discourse, also stressed the value of the trivial at the expense of political and historical realities. Drawing on the overemphasized autonomy of self and literature, the discourse sought to achieve a kind of compressed modernization. The major problem with the discourse lies not so much in its attempt of undertaking a certain modernization

project *per se*, as in the fact that its version of modernization did not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radically confronting and criticizing the modern.

* HK Professor, 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